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도참고자료**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2022년 3월 23일(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3. 23. (수) 오후 4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2. 3. 23. (수)	담당부서	신남방통상과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
담당과장	김범수 과장(044-203-5710) 조수정 과장(044-203-5740)	담 당 자	강봉조 사무관(044-203-5712) 박찬서 사무관(044-203-5718) 이 연 사무관(044-203-5744)

통상교섭본부장, 베트남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의 화상회담 개최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인·태 경제협의체(IPEF), 공급망 등 양국간 통상 현안 논의 및 향후 긴밀히 협조키로 -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 3. 23(수) 오후, **쩐 꿕 카잉**(Tran Quoc Khanh) **베트남 산업무역부 차관***과 화상 회담을 개최하여,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미 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주요 경제·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함

* 베트남의 FTA, CPTTP 등 양자·다자 통상업무를 총괄

**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 베트남·싱가포르·말레이시아·브루나이·일본·호주·뉴질랜드·캐나다·멕시코·브라질·칠레 등 11개국이 가입, 교역규모 5.2조 달러(14.9%), 명목 GDP 10.7조 달러 규모(12.7%)의 경제권('20년 기준)

□ 양측은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한국의 가입 신청시 상호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합의함

○ 한편, 여 본부장은 한국이 **지난해 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한 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왔고, **3.25(금) 공청회 등** 관련 **국내 절차를 거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추진할 예정인바, 환태평양경제동반**

자협정 회원국인 베트남의 적극적 지지를 당부함

○ 이에 카잉 차관은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을 **적극적으로 환영·지지**한다고 답하며,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과 관련하여 **양국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언급함

□ 한편 양측은 최근 미국이 인도태평양지역 내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위해 구상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와** 관련하여,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에 입각하여 **역내 다수국이 수용 가능한 기준 및 협력을 포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함

□ 아울러, 여 본부장은 **한국의 4대 교역국**인 베트남은 특히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 양국 간 교역액 최대치를 달성**하는 등 2017년 신남방정책 천명 이후 **양국 경제관계가 긴밀해져 왔음**을 언급하면서,

* 한-베 교역(억불) : ('17년) 639(수출 478, 수입 162) → ('18년) 692(수출 486, 수입 196) → ('19년) 693(수출 482, 수입 211) → ('20년) 691(수출 485, 수입 206) → '21년 807(수출 567, 수입 240)

** 한→베 투자규모(억불) ('12~'16년) 106 → ('17~'21.3분기) 178

○ **올해는 양국이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양국 경제협력 수준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핵심 공급망, 기후변화 대응 등의 다양한 상호 협력을 확대**하자고 제안하며,

○ 특히, 베트남을 포함한 공급망 핵심국가들과 추진 중인 **'공급망 연대·협력 동반 관계*'**을 통해 양국 간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함

* 국가별로 △교역원활화, △국제 공동연구, △공급망 통합 등 맞춤형 협력을 통해 공급망 정보를 신속·정확히 공유, 유사시 공급망 차질 가능성에 공동대응하는 상호호혜적 협력관계 구축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신남방통상과 박찬서 사무관(☎044-203-5718),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 이연 사무관(☎044-203-574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